‘꿈의 암치료기’, 부산 기장군에 들어온다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에
‘중입자가속기’ 2023년 도입
“부산 암 치료의 메카로 만들 것”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가속기가 오는 2023년까지 부산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에 들어선다.

부산시는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내 중입자치료센터에 도입할 중입자가속기가 선정됐다면서 사업의 주관사업자인 서울대병원이 도시바·DK메디칼솔루션 컨소시엄과 8월31일 계약 체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시바·DK메디칼솔루션 컨소시엄의 중입자가속기는 저명 학술지에 암세포를 파괴하는 ‘날카로운 명사수’라고 표현된 중입자가속기 중 최고 사양 제품이다.

중입자가속기는 탄소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빔을 암세포에 조사하는 치료기기다. 높은 종양 살상 능력으로 기존에 치료할 수 없었던 난치성 암의 치료가 가능하며 정상세포를 최대한 보호하는 동시에 암세포에만 대부분의 방사선량을 전달해 부작용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폐암·간암·췌장암·재발성 직장암·골육종 등 주요 고형암에 효과적이다. 일례로 중입자 치료 시 폐암 5년 생존율은 15.5%에서 39.8%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기존 방사선 치료 시 2~3주에 걸쳐 수십 차례 병원을 방문했으나 중입자 치료는 초기폐암의 경우 단 1회만으로 치료한 사례가 있는 등 치료 횟수가 12회 이내로 줄어들었다. 치료시간도 준비시간을 포함해 30분 정도로 짧다.

기장 중입자치료센터에 구축될 중입자가속기는 중입자 빔의 전달속도와 범위를 뜻하는 선량율(단위시간당의 방사선량단위

) 4Gy/L/min, 조사야(병발생위치에서의 한방향에서 조사되는면의범위) 30cm×40cm로 세계 최고 크기다. 또, 최첨단 소형 초전도 회전 갠트리를 적용해 환자주변을 360도 회전할 수 있어 어느각도에서나 자유롭게 빔을 조사할 수 있다. 이전에는 빔노즐이 고정돼 중입자선을 투여하기 위해 환자의 몸을 돌려야만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회전 갠트리는 길이 25m, 지름 13m, 무게 500t으로 건물 5층 높이에 해당하는 큰 공간을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대병원이 계약한 기기는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크기(지름 11m)와 무게(280t)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기장에 도입되는 중입자가속기는 탄소뿐만 아니라 헬륨을 더해 두 가지 이온원으로 치료와 함께 연구도 병행할 수 있다.

부산시 신창호 미래산업국장은 “중입자치료는 암 치료의 다음 지평이고 이번 중입자 치료시스템 도입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최선의 암 치료를 실현함으로써 부산을 암 치료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부산시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2024년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계약 체결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된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김연수 원장과 정승용 부원장, 우홍균 중입자가속기사업단장 등 주요 집행부가, 컨소시엄 측에서는 도시바 히타자와 사장, DK메디칼솔루션 이창규 회장과 이준혁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김학동 예천군수(오른쪽)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예천군

예천군

김학동 군수, 코로나19 캠페인

예천군은 8월31일 오전 7시 40분부터 예천읍 천보당 사거리, 남본 사거리, 호명면 중심상가 사거리 등 출근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알리고 코로나19 추가 확산 예방, 마스크 착용 독려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학동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하기’, ‘모임·단체 행사 금지’, ‘코로나19 극복’, ‘인사는 마음으로 악수는 NO’ 등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출근길 군민들에게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예천(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광주 남구, ‘구도심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40억 투입… 내년 사업 스타트
태양광 발전설비·급탕 등 설치
전기 사용료 70~100% 절감

광주 신효천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남구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농촌과 구도심 지역에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남구는 8월31일 “내년에 40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촌동과 효덕동, 송암동, 주월1·2동, 월산1·5동에서 에너지 자립률 100%를 위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지역에는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활용하는 시설이 구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건축물 옥상과 유휴 부지를 활용해 515개소에 총 1.9㎿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49개소에는 태양열 급탕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택에는 3㎾급 태양광 발전설비가 공급되며, 상업용 건물에는 5~49㎾급이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구축된 주택의 경우 통상적으로 한달 전기 사용료의 70~100% 가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태양열 급탕설비가 구축된 가정에서는 기존에 사용해왔던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료 대비 4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분야 공모에 선정되면서 관내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빠른 속도로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전라남도

노인시설에 전복 1억치 전달

전라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로감이 높아진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323개소에 1억 원 상당의 전복을 전달해 격려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면회 금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준코호트 격리중인 노인생활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피로감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요양원과 양로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와 면역력 증진을 위해 광주은행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기탁한 성금 1억원으로 전복 3천 124kg을 구입, 노인생활시설 323개소에 8월31일부터 순차적으로 보급에 나섰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관광지 방역사업 국비 18억 확보

250개 공공 일자리 창출

부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서 국비 18억원을 확보해 ‘관광지 방역관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 사업으로 부산시는 관광지 방역관리 사업을 통해 관광지 방역체계를 강화,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미리 차단하고 계속되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구·군 대상으로 방역인력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와 방역 관련 일자리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으로 관광업계 휴직자, 실직자를 대상으로 관광업계 관련 종사자 250여 명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부산=허의원 기자

임종식 교육감이(오른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를 지원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소외계층 학생에 스마트기기 지원

컴퓨터 3000대, 노트북 205대

경북교육청은 교육급여수급자 등 정보소외계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태블릿 컴퓨터 3000대와 노트북 컴퓨터 205대를 지원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지난 28일 안동 소재 경안신육원과 프란치스꼬청소년의집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25개소와 정보소외계층 학생 2387명에게 지원한다.

이번 지원하는 스마트기기는 삼성전자·엘지전자·엘지유플러스로부터 기증받은 태블릿 컴퓨터 3,000대와 일선 학교에서 폐기하는 노후 정보화 기기를 경북교육청에서 일괄 수거·처리하는 ‘노후 불용컴퓨터 일괄 수거 매각 사업’으로 마련된 신품 노트북 205대이다.

‘노후 불용컴퓨터 일괄 수거 매각 사업’은 정보화기기의 일괄 수거로 일선 학교 업무경감과 매각을 통해 확보된 노트북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환경도 개선하게 됐다. /경북=문봉현 기자

나주시

카드형 지역화폐 ‘나주사랑카드’ 출시

나주시가 오는 9월 1일 지류(종이)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형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카드’를 출시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과 7월 조폐공사, NH농협은행전남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카드 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신뢰·보안성 제고와 사용자 편의 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9월 1일부터 출시되는 나주사랑카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한국조폐공사 앱(APP) ‘지역상품권 chak’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내 농협·우체국을 방문, 농협·신한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나주(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광주시교육청

끼·재능 넘치는 학생 키운다

광주시교육청이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해 끼와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한다. 특히 스타발굴단 학생들과 광주 출신 스타 연예인을 연결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시작은 ‘동방신기’ 출신 광주 지역 대표 연예인 유노윤호와 열정으로 뭉친 광주고 학생 밴드 ‘미르’다.

8월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유튜브 콘텐츠는 광주 지역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고 재능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많은 인기와 바른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광주 출신 연예인 유노윤호가 음악적 열정이 풍부한 ‘미르 밴드’의 소식을 듣고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광주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광주고 ‘미르 밴드’와 유노윤호가 참여해 제작된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첫 편을 오는 9월2일 광주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김태수 기자